

# ‘心者 君主之官’의 經絡學的 根據

世明大學校 韓醫學科 原典醫史學教室·大田大學校 韓醫學科 醫史學教室

趙學俊·金容辰

## ‘心者君主之官’의 經絡學依據

趙學俊·金容辰

世明大學校 韓醫學科 原典醫史學教室·大田大學校 韓醫學科 醫史學教室

通過歷代文獻的考證, 對‘心者君主之官’的經絡學依據進行研究結果, 得出以下結論:

心從功能上可分為神明之心和血肉之心, 神明之心與大腦的精神活動有關, 血肉之心與循環系統中樞性作用有關.

心通過系與五臟及膀胱相聯系, 通過經脈與肺, 脾, 心, 小腸, 腎, 心包, 三焦相聯系, 通過十二經別與膀胱, 膽, 胃, 心相聯系. 但是未察到與大腸及膀胱相聯系的依據.

從心為五臟六腑之大主以及與五臟系通過經脈, 經別等相聯系的兩大原則來看, 心通過五臟系和經脈, 經別等與五臟六腑相聯系, 並加於控制, 而且臟腑通過經脈, 經別, 經筋等與人體各部位相聯系. 因此, 心能够與人體各部位相聯系, 並給予控制.

以上內容考證了‘心者君主之官’的經絡學依據. 由於韓醫學多少有無法實證的特点及文獻的缺陷, 難免會有研究的局限性. 今後多加挖掘相關文獻, 期待能够找到更位確切的理論依據.

關鍵詞: 心者君主之官, 經絡學, 血肉之心, 神明之心.

## I. 序論

『素問·靈蘭秘典論』에서 “心이란 君主의 所任이며 神明이 거기서 나온다.”<sup>1)</sup>, 「六節藏象論」에서 “心은 生의 근본이다.”<sup>2)</sup>, 「解精微論」에서 “心은 五藏의 專精이다.”<sup>3)</sup>, 『靈樞·本神』에서 “外

物을 마음대로 하는 것을 心이라 한다.<sup>4)</sup>, 「口問」에서 “心은 五藏 六府의 主이다.”<sup>5)</sup>라 하였다. 이렇듯이 文字的인 근거로 볼 때 『內經』에서는 五臟六腑 중에서 心을 가장 중시하여 왔다.

또한 비록 『東醫寶鑑』 등에는 五行의 順序에 따라 肝·心·脾·肺·腎의 順序로 열거하기도 하였지만, 『醫學入門』 등에서는 心을 먼저 배치하고 나머지 肝·脾·肺·腎의 順序로 열거하기도 하였다. 그 이유가 『醫學入門』이 儒學者가 쓴 醫書이기

\* 交信著者: 趙學俊, 世明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043) 649-1347, johohun@kornet.net

1) 洪元植 編,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34. 「靈蘭秘典論」 “心者 君主之官也 神明出焉”  
2) 洪元植 編, 精校黃帝內經素問, 前揭書, p.36. 「六節藏象論」 “心者 生之本 神之變也”  
3) 洪元植 編, 精校黃帝內經素問, 前揭書, p.324. 「解精微論」 “心者 五藏之專精也”

4) 洪元植 編, 精校黃帝內經靈樞, 前揭書, p.68. 「本神」 “所以任物者 謂之心”

5) 洪元植 編, 精校黃帝內經靈樞, 前揭書, p.159. 「口問」 “心者 五藏六府之主也”

때문에 儒學에서 ‘修身’에 있어서 ‘正心’을 강조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되지만, 隱然 중에 이 역시 五臟六腑 중에서 心을 가장 중시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內經·靈蘭秘典論』의 ‘十二官’에 대한 설명 중 心을 처음에 배열한 것을 보아도, 『內經』에서도 文字로 표현하기 이전에 隱然히 五臟六腑 중에서 心을 가장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心이 인체의 中樞의 역할을 한다고 상징적인 언급만 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역할을 수행하는지는 밝혀 있지 않다.

이에 心이 다른 臟器들과 연결되는 경로인 經絡과 五臟系 등을 고찰함으로써 ‘心者 君主之官’의 經絡的 根據를 제시하고자 한다.

## II. 本 論

『素問·靈蘭秘典論』에서 “心이란 君主의 벼슬이며 神明이 거기서 나온다.”<sup>6)</sup>라고 하였는데, 心이 君主之官인 이유에 대한 諸家의 注釋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견해로 나뉜다.

첫째 心이 君主之官인 이유가 ‘心主神明’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王冰은 “물건을 마음대로 다스린다.”<sup>7)</sup>, 張志聰은 “자리가 남쪽에 거하여 신령스럽게 萬機에 응한다.”<sup>8)</sup>, 張景岳은 “虛靈을 품부 받고 조화를 머금어서 한 가지 이치를 갖추어 萬機에 應하니 藏府와 百骸가 오직 여기(心)에서 命을 받는다.”<sup>9)</sup>라 하였다.

둘째 心이 君主之官인 이유가 ‘心主血脈’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丹波元簡은 “淮南子에 이르되 心은 五臟의 主이니 四肢를 제어하고 부리며 血氣를 流行한다고 하였다.”<sup>10)</sup>, 程士德은 “心은

전신 血氣의 運行을 총괄하고 四肢 百骸의 활동을 제어하여 五臟 六腑의 大主가 된다.”<sup>11)</sup>라고 하였다.

### 1. 神明之心과 血肉之心

『醫學入門』에 “血肉的 心이란 형체가 아직 피지 않은 연꽃과 같아서 肺의 아래 肝의 위에 있는 것이다. 神明의 心이란 氣血이 化生하는 근본이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盛長하고 色이나 象으로 드러나지 않으니 있다고 말하더라도 형체로는 없으며 없다고 말하더라도 작용은 존재하니 萬事萬物을 主宰하여 虛靈하여 어둡지 않은 것이 이것이다.”<sup>12)</sup>라고 하였다.

#### 1) 神明之心

神明之心은 ‘心藏神’의 기능과 관련이 있다.

神明之心과 관련된 『內經』의 기록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心에 대한 『內經』의 기록

素問	心者 君主之官也 神明出焉(『素問·靈蘭秘典論』)
	心者 生之本 神之變也(『素問·六節藏象論』)
	心藏神(『素問·宣明五氣』)
	心藏神(『素問·調經論』)
	心者 君主之官 神明出焉(『素問·刺法論』)
	心爲君主之官 神明出焉 神失守位 卽神遊上丹田 在帝太一帝君泥丸宮下 神旣失守 神光不聚(『素問·本病論』)
	心者 五藏之專精也(『素問·解精微論』)
	心悲名曰志悲 志與心精共湊於目也 是以俱悲則神氣傳於心 精上不傳於志而志獨悲 故泣出也(『素問·解精微論』)

6) 洪元植 編, 精校黃帝內經素問, 前揭書, p.34. 「靈蘭秘典論」 “心者 君主之官也 神明出焉”  
 7) 王冰, (懸吐完譯)黃帝內經王冰注, 대전, 周珉出版社, 2003, p.??, 「靈蘭秘典論」 “任治於物”  
 8) 張志聰, (新編)黃帝內經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78, 「靈蘭秘典論」 “位居南而靈應萬機”  
 9) 張景岳, 類經, 서울, 大成出版社, 1982, p.44, 「靈蘭秘典論」 “稟虛靈而含造化 具一理以應萬幾 藏府百骸 惟所是命”

10) 丹波元簡, 素問識, 서울, 一中社, 1991, p.66 “淮南子云 夫心者 五臟之主也 所以制使四支 流行血氣”  
 11) 程士德 主編, 素問注釋匯粹, 中國, 人民衛生出版社, 1982, p.132  
 12) 李梴, 醫學入門, 서울, 南山堂, 1991 p.325, “有血肉之心 形如未開蓮花 居肺下肝上 是也 有神明之心 神者 氣血所化 生之本也 萬物由之盛長 不著色象 謂有何有 謂無復存 主宰萬事萬物 虛靈不昧者 是也”

靈 樞	生之來 謂之精 兩精相搏 謂之神 隨神往來者 謂之魂 並精而出入者 謂之魄 所以任物者 謂之心 心有所憶 謂之意 意之所存 謂之志 因志而存變 謂之思 因思而遠慕 謂之慮 因慮而處物 謂之智(『靈樞·本神』) 心者 五藏六府之主也(『靈樞·口問』) 積神於心 以知往今(『靈樞·五色』) 黃帝曰 何者爲神 岐伯曰 血氣已和 營衛已通 五藏已成 神氣舍心 魂魄畢具 乃成爲人(『靈樞·天年』) 心藏神 肺藏魄 肝藏魂 脾藏意 腎藏精志也(『靈樞·九鍼』) 心者 神之舍也 故精神亂而不轉 卒然見非常處 精神魂魄 散不相得 故曰惑也(『靈樞·大惑論』)
--------	---------------------------------------------------------------------------------------------------------------------------------------------------------------------------------------------------------------------------------------------------------------------------------------------------

한편 神明之心은 精神 活動과 관련이 있는데, 이 精神은 心에 감추어져(藏, 舍) 있다가 만일 제 위치를 잃으면 上丹田 즉 泥丸宮(頭의 九宮 중의 하나) 아래에서 遊行한다고 하여 頭腦의 精神 活動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血肉之心

血肉之心은 循環系統의 心臟을 지칭한다.<sup>13)</sup> 韓醫學의인 관점에서의 心의 部位와 形態로 보면 따라서 氣血을 轉輸하는 ‘主血脈’의 기능이 있다.

血肉之心과 관련된 『內經』의 기록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血肉之心의 기록

素 問	心者 生之本 …… 其充在血脈(『素問·六節藏象論』) 心之合脈也(『素問·五藏生成篇』) 心藏血脈之氣也(『素問·平人氣象論』) 心主身之血脈(『素問·痿論』)
--------	--------------------------------------------------------------------------------------------

이 중 ‘心之合脈’에 대해 張景岳은 “心은 血을 主하고 血은 脈中으로 行하므로 脈에 合한다.”<sup>14)</sup> 吳注에서는 “心은 血을 主하고 神을 저장하니, 脈은 血이 體이고 神이 用이 되므로 心은 脈에 合

한다.”<sup>15)</sup>라고만 하고, ‘心主血脈’의 구체적인 정황은 설명하지 않았다.

2. 他臟과의 連結 中樞로서의 心

心은 五臟系와 經脈과 經別을 통하여 他 臟腑에 연락 지배하며, 다시 臟腑의 經脈, 經別, 經筋 등을 통하여 인체의 각 부분과 연락 지배한다고 인식하였다.

1) 心은 系를 통하여 他 臟腑에 연락된다.

『醫學入門·臟腑條分』에 “五臟의 系는 心에 통하고 心은 五臟系에 통한다. 心의 系가 五臟의 系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 氣血을 運輸하여 骨髓에 스며들게 한다. 따라서 五臟에 病이 있으면 먼저 心을 침범한다. …… 그 別系는 肺의 兩葉의 가운데로부터 뒤쪽으로 脊으로 통한 것은 腎이고, 腎으로부터 膀胱으로 가서 膀胱의 膜絡과 並行하여 排尿處까지 가니 이곳이 關元 下極의 部分이다.”<sup>16)</sup>라고 하여, 심은 系를 통하여 五臟 및 膀胱에 연락됨을 알 수 있다.

2) 心은 經脈을 통하여 他 臟腑에 연락된다.

표 3. 心과 他 臟腑와의 連結關係

心을 지나가는 十二經脈의 근거	
肺	肺手太陰之脈은 起於中焦하고 下絡大腸 <sup>하야</sup> 還循胃口하고 上膈屬肺 <sup>하야</sup> 從肺系橫出腋下 <sup>하야</sup> 下循膈內 <sup>하야</sup> 行少陰心主之前하고 下肘中 <sup>하야</sup> 循臂內하고 上骨下廉 <sup>하야</sup> 入寸口하고 上魚 <sup>하야</sup> 循魚際하고 出大指之端 <sup>하야</sup> 其支者는 從腕後直出次指內廉 <sup>하야</sup> 出其端 <sup>하야</sup> 是動則病肺脹滿膨膨而喘欬하고 缺盆中痛하고 甚則交兩手而臂 <sup>하야</sup> 此爲臂厥 <sup>하야</sup>
脾	脾足太陰之脈은 起於大指之端 <sup>하야</sup> 循指內側白肉際 <sup>하야</sup> 過核骨後 <sup>하야</sup> 上內踝前廉하고 上[循]膕內 <sup>하야</sup> 循脛骨後 <sup>하야</sup> 交出厥陰之前하고 上[循]膝股內前廉 <sup>하야</sup>

15) “心主血而藏神 脈則血體而神用 故心合脈”

16) 李梴, 醫學入門, 上揭書, p.326. “五臟系 通於心 心通五臟系 心之系 與五臟之系相連 輸其氣血 滲灌骨髓 故五臟有病 先干於心 …… 其別者 自肺兩葉之中 向後通脊者 腎 自腎而之於膀胱 與膀胱膜絡 並行而之洩溺處 乃關元 下極部分”

13) 王新華, 中醫歷代醫論選, 中國, 江蘇科學出版社, 1983, p.30

14) “心主血 血行脈中 故合於脈”

	入腹 <sup>하</sup> 屬脾 絡胃 <sup>하</sup> 上膈挾咽 <sup>하</sup> 連舌本 <sup>하</sup> 散舌下 <sup>하</sup> 其支者 <sup>는</sup> 復從胃 <sup>하</sup> 別上膈 <sup>하</sup> 注心中 <sup>하</sup> 이라
心	心手少陰之脈 <sup>은</sup> 起於心中 <sup>하</sup> 出屬心系 <sup>하</sup> 下膈 絡小腸 <sup>하</sup> 이라 其支者 <sup>는</sup> 從心系 <sup>하</sup> 上挾咽 <sup>하</sup> 繫目系 <sup>하</sup> 其直者 <sup>는</sup> 復從心系 <sup>하</sup> 却上肺 <sup>하</sup> (下) 出腋下 <sup>하</sup> 下循膈內後廉 <sup>하</sup> 行太陰心主之後 <sup>하</sup> 下肘內 <sup>하</sup> 循臂內後廉 <sup>하</sup> 抵掌後銳骨之端 <sup>하</sup> 入掌內(後)廉 <sup>하</sup> 循小指之內 <sup>하</sup> 出其端 <sup>하</sup> 이라
小腸	小腸手太陽之脈 <sup>은</sup> 起於小指之端 <sup>하</sup> 循手外側 <sup>하</sup> 上腕 <sup>하</sup> 出踝中 <sup>하</sup> 直上循臂骨下廉 <sup>하</sup> 出肘內側兩[骨](筋)之間 <sup>하</sup> 上循膈外後廉 <sup>하</sup> 出肩解 <sup>하</sup> 繞肩胛 交肩上 <sup>하</sup> 入缺盆 絡心 <sup>하</sup> 循咽下膈抵胃 <sup>하</sup> 屬小腸 <sup>하</sup> 이라 其支者 <sup>는</sup> 從缺盆循頸上頰 <sup>하</sup> 至目銳眦 <sup>하</sup> 却入耳中 <sup>하</sup> 이라 其支者 <sup>는</sup> 別頰上頰 <sup>하</sup> 抵鼻 <sup>하</sup> 至目內眦 <sup>하</sup> 斜絡於頰 <sup>하</sup> 이라
腎	腎足少陰之脈 <sup>은</sup> 起於小指之下 <sup>하</sup> 邪走足心 <sup>하</sup> 出於然[骨](谷)之下 <sup>하</sup> 循內踝之後 <sup>하</sup> 別入眼中 <sup>하</sup> (以) 上端內 <sup>하</sup> 出膈內廉 <sup>하</sup> 上股內後廉 <sup>하</sup> 貫脊 <sup>하</sup> 屬腎 絡膀胱 <sup>하</sup> 이라 其直者 <sup>는</sup> 從腎上貫肝膈 <sup>하</sup> 入肺中 <sup>하</sup> 循喉嚨 <sup>하</sup> 挾舌本 <sup>하</sup> 이라 其支者 <sup>는</sup> 從肺出絡心 <sup>하</sup> 注胸中 <sup>하</sup> 이라
心包	心主手厥陰心包絡之脈 <sup>은</sup> 起於胸中 <sup>하</sup> 出屬心包絡 <sup>하</sup> 下膈 <sup>하</sup> 歷絡三焦 <sup>하</sup> 其支者 <sup>는</sup> 循胸出脇 <sup>하</sup> 下腋三寸 <sup>하</sup> 上抵腋 <sup>하</sup> 下循膈內 <sup>하</sup> 行太陰少陰之間 <sup>하</sup> 入肘中 <sup>하</sup> 下[循]臂 <sup>하</sup> 行兩筋之間 <sup>하</sup> 入掌中 <sup>하</sup> 循中指 <sup>하</sup> 出其端 <sup>하</sup> 이라 其支者 <sup>는</sup> 別掌中 <sup>하</sup> 循小指次指 <sup>하</sup> 出其端 <sup>하</sup> 이라
三焦	三焦手少陽之脈 <sup>은</sup> 起於小指次指之端 <sup>하</sup> 上出兩指之間 <sup>하</sup> 循手表腕 <sup>하</sup> 出臂外兩骨之間 <sup>하</sup> 上貫肘 <sup>하</sup> 循膈外 <sup>하</sup> 上肩而交出足少陽之後 <sup>하</sup> 入缺盆 <sup>하</sup> 布膻中 <sup>하</sup> 散[絡](落)心包 <sup>하</sup> 下膈 <sup>하</sup> [遍](循)屬三焦 <sup>하</sup> 이라 其支者 <sup>는</sup> 從膻中上出缺盆 <sup>하</sup> 上項 <sup>하</sup> [俠](繫)耳後 <sup>하</sup> 直上出耳上角 <sup>하</sup> 以屈下頰至頰 <sup>하</sup> 이라 其支者 <sup>는</sup> 從耳後入耳中 <sup>하</sup> 出走耳前 <sup>하</sup> 過客主人前 <sup>하</sup> 交頰 <sup>하</sup> 至目銳眦 <sup>하</sup> 이라

위의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十二經脈을 통하여 心은 肺·脾·心·小腸·腎·心包·三焦에 연락되고 있다.

3) 心은 經脈과 經別을 통하여 他 臟腑에 연락된다.

표 4. 心과 他 經別과의 連結關係

心을 지나가는 十二經別의 근거	
膀胱	足太陽之正 <sup>은</sup> 別入於膕中 <sup>하</sup> 其一道 <sup>는</sup> 下尻五寸 <sup>하</sup> 別入於肛 <sup>하</sup> 屬於膀胱 <sup>하</sup> 散之腎 <sup>하</sup> 循膂 <sup>하</sup> 當心入散 <sup>하</sup> 直者 <sup>는</sup> 從膂上出於項 <sup>하</sup> 復屬於太陽 <sup>하</sup> 此爲一經也 <sup>라</sup>
膽	足少陽之正 <sup>은</sup> 繞臍入毛際 <sup>하</sup> 合於厥陰 <sup>하</sup> 別者 <sup>는</sup> 入季脇之間 <sup>하</sup> 循胸裏 <sup>하</sup> 屬膽 <sup>하</sup> 散之肝 <sup>하</sup> 上貫心 <sup>하</sup> 以上挾咽 <sup>하</sup> 出頤頰中 <sup>하</sup> 散於面 <sup>하</sup> 繫目系 <sup>하</sup> 合少陽於外眦也 <sup>라</sup>
胃	足陽明之正 <sup>은</sup> 上至髀 <sup>하</sup> 入於腹裏 <sup>하</sup> 屬胃 <sup>하</sup> 散之脾 <sup>하</sup> 上通於心 <sup>하</sup> 上循咽 <sup>하</sup> 出於口 <sup>하</sup> 上頰頰 <sup>하</sup> 還繫目系 <sup>하</sup> 合於陽明也 <sup>라</sup>
小腸	手太陽之正 <sup>은</sup> 指地 <sup>하</sup> 別於肩解 <sup>하</sup> 入腋走心 <sup>하</sup> 繫小腸也 <sup>라</sup>
心	手少陰之正 <sup>은</sup> 別入於淵腋兩筋之間 <sup>하</sup> 屬於心 <sup>하</sup> 上走喉嚨 <sup>하</sup> 出於面 <sup>하</sup> 合目內眦 <sup>하</sup> 此爲四合也 <sup>라</sup>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十二經別을 통하여 心은 膀胱·膽·胃·心에 연락되고 있다.

위의 두 가지를 종합하면 經脈과 經別을 통하여 心은 肺·脾·胃·心·小腸·腎·心包·三焦·膽과 연락되고 있으며, 大腸·膀胱·肝에 연락되고 있는 증거는 『內經』에서는 찾지 못하였다.

心이 五臟 六腑의 大主라는 것과 五臟系와 經脈, 經別 등을 통하여 연락된다는 두 가지 원칙에서 미루어 보면 心은 五臟系와 經脈, 經別 등을 통하여 五臟 六腑를 지배할 수 있다. 또한 臟腑는 經脈, 經別, 經筋 등을 통하여 인체의 각 부분과 연락되므로 결과적으로 心이 인체의 각 부분과 연락하며 지배할 수 있다.

### III. 結 論

歷代 文獻을 통하여 ‘心者 君主之官’의 經絡的 根據를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心은 기능적으로 神明之心과 血肉之心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神明之心은 頭腦의 精神 活動과 관련이 있으며, 血肉之心은 循環系의 中樞로서의 역할

과 관련이 있다.

2. 心은 系를 통하여 五臟 및 膀胱에, 經脈을 통하여 心은 肺·脾·心·小腸·腎·心包·三焦에, 十二經別을 통하여 心은 膀胱·膽·胃·心에 연락되고 있다. 그러나 大腸·膀胱에 연락되고 있는 증거는 미처 찾지 못하였다.
3. 心이 五臟 六腑의 大主라는 것과 五臟系와 經脈, 經別 등을 통하여 연락된다는 두 가지 원칙에서 미루어 보면, 心은 五臟系와 經脈, 經別 등을 통하여 五臟 六腑를 연락, 지배할 수 있으며 또한 臟腑는 經脈, 經別, 經筋 등을 통하여 인체의 각 部分과 연락된다. 따라서 心이 인체의 각 부분과 연락, 지배할 수 있다.

이상에서 ‘心者 君主之官’의 經絡的 根據를 고찰하였지만, 韓醫學이 다소 實證的이지 않는 특성으로 인하여 文獻이 적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또 다른 文獻이 발견되어 보다 완벽한 근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 參考文獻

1. 洪元植 編,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2. 王冰, (懸吐完譯)黃帝內經王冰注, 대전, 周珉出版社, 2003.
3. 張志聰, (新編)黃帝內經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1994.
4. 張景岳, 類經, 서울, 大成出版社, 1982.
5. 丹波元簡, 素問識, 서울, 一中社, 1991.
6. 程士德 主編, 素問注釋滙粹, 中國, 人民衛生出版社, 1982.
7. 李梴, 醫學入門, 서울, 南山堂, 1991.
8. 王新華, 中醫歷代醫論選, 中國, 江蘇科術出版社, 1983.